‘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안전’ 대비해야 안전한 동선 확보 관건…표지판 등 보완 필요

SPACE21 안전문제

박기윤 기자 kyoon7230@khu.ac.kr

#. 지난달 28일 청운관 앞 녹원 조경공사 현장에서 소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을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SPACE21 건설사업단 측은 “소나무가 이전부터 불안해서 지지대로 고정했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고 밝혔다. 쓰러진 소나무로 알 수 있듯이 개강 이후에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서 공사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SPACE21에 관한 안전문제를 짚어봤다.

개강 이후 사람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청운관에서 경영대 혹은 학생회관과 의대까지의 길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SPACE21 공사 주변에서 교통지도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헐떡고개 위를 지나문, 이과대로 향하는 길은 관리가 어렵다”며 “공사 범위도 아닐뿐더러 인원이 배정돼 있지 않아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휠체어를 탄 한 학생은 “청운관에서 수업을 듣고 정경대로 가는 길이 매우 복잡하다”며 “숲길은 넓이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어쩔 수 없이 도서관쪽 길을 이용하게 되는데, 동선이 길고 경사가 심해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없는 시간이라도 경사로가 플라스틱으로 돼있어 불안하다”며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문 인근에서 차도로 보행하던 또 다른 학생은 “길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표시판이나 종합적인 동선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고, 교통정리는 몇 안 되는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숲길 인근의 직원은 “보행자가 익숙한 길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차도를 많이 이용한다”며 “차량을 통제하면 그 틈에 뒤로 돌아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학생이 많아 곤란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문 앞 직원도 “차도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며 “공사차량이 수시로 출입하기 때문에 차도 통행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 현재 공사중인 서울캠 대운동장 모습.
② 노천극장과 대운동장을 잇는 지하통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SPACE21 건설사업단은 안전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보행로에 배치된 안내 직원을 개강 후 2주 동안 12명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밝은사회탑에서 크라운관으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야광등을 설치해 야간 차량운행과 구성원의 통행을 배려하고 있다. 장 팀장은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공사 전에도 헐떡고개 부근과 밝은사회탑, 크라운관 쪽은 제대로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위험했다”며 “공사 중에도 보행자와 차량 분리에 신경을 쓸 것이고, 완공 후에는 동선이 완전히 격리되게 되니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총학·대학본부 건설사업 전반 논의할 ‘소통위원회’ 설치

SPACE21 소통위원회 설치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서울】 SPACE21 사업관련 중요사안을 논의할 특별기구인 ‘소통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기구는 지난달 23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대학본부가 합의한 ‘SPACE21 논의를 위한 8가지 제안’에 따른 것이다.

‘SPACE21 논의를 위한 8가지 제안’에는 ▲특별기구를 설치해 구성원과 SPACE21에 대한 중요 사안을 논의한다 ▲기채 상환 계획을 1차적으로 특별기구에서 논의한다 ▲안전점검 실시와 결과 공개 후 필요한 부분은 개선 및 보수한다 ▲강의수와 학생학습에 대한 제반 조건을 2015학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며 강의 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합의한다 ▲대운동장, 노천극장 사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장애학생들의 이동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통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양 캠퍼스 부총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SPACE21 사업 지원단장이 맡고, 추진위원은 양 캠퍼스 교수 2명과 교직원 2명, 학생 대표(또는 추천인)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 뿐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정책원장, 건설사업단장, 재정경영원장, 사업지원단 행정과장이 참여할 계획이다. 국제캠퍼스는 캠퍼스종합개발TF가 이미 운영중이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추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소통위원회’의 1차 회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이후 격월로 정기 회의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정기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소통위원회’ 설치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서울캠 총학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부회장은 “운동장 사용 문제 등 직면한 여러 문제는 설치 이전에 대학본부와 직접 논의해 처리했다”며 “특별기구에 참여할 일부 위원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소통위원회는 향후 SPACE21 사업 관련 건설 및 재정 운영 등의 진행 상황 공유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에 대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제34회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5

■ 개요
- 행사명 : 제34회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5
- 주제 : 함께 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 일정 : 2015.9.21.(월)~22(화)
- 장소 : 평화의 전당, 청운관 B117호

■ 전체 취지문

함께 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행복한 삶,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 화두입니다. 그러나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갈등과 고통, 불안과 불신의 정조(情調)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잇달아 공개되는 지구 문명 보고서는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문명 융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굶주림과 가난, 깨끗한 물 한 모금의 절규, 증폭되는 빈부격차, 일상화된 핵 · 테러 위협, 녹아내리는 극지방 빙하와 생태 위기.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문명의 흐름은 ‘인간이 과연 안전과 행복의 조건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집니다.

경희대학교는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가 1981년에 제안한 UN 세계평화의 날 34주년을 기념합니다. 올해는 특히 UN 창설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 행사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섭니다. 경희는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삶의 근본 가치, 안전과 행복은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우리는 현대 문명의 수혜자로, 그 특권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Peace BAR Festival(PBF) 2015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9월 21일과 22일, 기념식과 총 2부로 구성된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 개막을 알리는 9월 21일 오전 행사 기념식에선 지난 33년의 PBF 연혁 소개와 함께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의 기념사에 이어 특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문명의 오만과 억압 정치에 맞서 한 평생 ‘역사의 진실’과 ‘책임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벨벳 혁명(Velvet Revolution)’의 주역 고(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께 명예 평화학 박사학위를 수여 합니다. 뒤이어 이를 축하하는 체코국립음대와 경희대 음대의 특별한 공연을 갖습니다. 당일 오후에 진행될 〈1부: 명예학위 수여 기념 원탁회의〉는 하벨 연구의 권위자 체코 카렐대학교 마틴 푸트나(Martin C. Putna) 교수와 국내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해 이 시대 하벨의 생애와 철학이 주는 역사적 의의를 성찰 합니다. 다음 날 9월 22일 진행될 〈2부: 세계평화의 날 기념 특별대담〉에는 국내 전현직 대학 총장 3인과 이리나 보코바(Irina Georgieva Bokova) UNESCO 사무총장, 미국 펜실베니아대 에이미 거트만(Amy Gutmann) 총장이 함께하는 ‘성찰과 전망’의 자리를 갖습니다. 이 시대 대학과 정치, 정치와 대학은 어떤 문제의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과 함께 더 나은 인류와 문명의 내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궈 가야할 혁신과 창조의 길을 모색합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인간의 미래를 위한 꿈과 상상, 가치의 길을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안위와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PBF 2015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전체 구성

일정		내용	
9.21 (월)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10:00~10:25)	개회	사회: 정종필 미래문명원장
		세계평화의 날 개관	정종필 미래문명원장
		축하 메시지(영상)	반기문 UN 사무총장
		기념사	조인원 경희대학교 총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10:25~11:30)	프리젠테이션	송재룡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수락사	이반 하벨 전 카렐대학 이론연구소장 (바츨라프 하벨 전 대통령 동생)
		축하공연	– Dvorak Serenade For Strings. Op.22, Ⅱ. Tempo Di Valse – 목련화 – 체코 국립 음악대학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협연
	1부 명예박사 학위 수여 기념 원탁회의 (13:00~17:00)	취지 및 패널 소개	사회자
		토론	
		질의 응답	
9.22 (화)	2부 세계평화의 날 기념 라운드테이블 (15:00~17:00)	취지 및 패널 소개	사회자
		토론	
		질의 응답	

※ 행사 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웹캐스팅 및 동시통역 예정

■ 구성원 참여 프로그램

• 평화토크

일 자	2015.9.18(금) ~ 25(금) 중 1일
개 요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생들 기획단이 자율적으로 주관하는 행사이다. PBF 2015 주제와 관련된 영상 및 저서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논의해 본다. 앞으로 모두가 함께 할 우리의 가치와 그 가능성의 미래를 살펴본다.
주 제	평화
대 상	경희구성원
주 관	서울 및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및 ARETE담당교수: 우기동(서울), 김영진(국제)

• 경희구성원공모전

일 자	2015. 9. 7(월) ~ 11.13(금)
개 요	PBF 2015 주제와 관련된 서적 및 영상을 감상한 후 자신의 생각을 글쓰기와 UCC영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공모전이다. 지속가능한 인간의 미래를 위한 꿈과 상상, 가치의 길을 모색한다.
주 제	세계평화, 우리 삶 속의 평화, 세계시민의 자세, 우리가 만들어 갈 세상
대 상	– 학생 전공 영역별(인문사회, 이공, 예술 및 의학 계열) – 전체 교직원
주 관	대외협력처 홍보실, 미래문명원

•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일 자	2015.9.19.(토). 09:00~17:50
개 요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5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15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으로서, 국내 대학생 및 인사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통한 세계의 평화’를 표방하며 심층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다.
주 제	당신의 목소리로 세계시민교육을 말하다
주 관	GSC(지구사회봉사단)
장 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401호

• 전체코 대통령 관련 전시회

일 자	2015.9.16.(수)~22(화)
개 요	바츨라프 하벨,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이끈 주요 인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과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관련 도서, 사진, 다큐멘터리를 감상한다.
주 관	미래문명원, 중앙도서관, 체코 문화원 협조
장 소	– 도서, 사진 2015.9.16.(수)~18(금) : 본관 진입로(중앙도서관, 온실 사이) 2015.9.21.(월)~22(화) : 평화의전당 로비 – 다큐멘터리 2015.9.16.(수)~18(금) : 도서관 시청각실(4회 상영) 2015.9.21.(월)~22(화) : 평화의전당 로비

• 34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전시회

일 자	2015.9.16.(수)~22.(화)
개 요	PBF 2015를 맞아 경희 평화 운동사를 회고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이슈(인권, 여성, 평화 등), 자원 활동과 관련된 경희대학교 구성원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참여자 중심의 전시, 모금, 공연 등의 평화 박람회 부스를 운영한다.
주 관	경희기록관, GSC, 미래문명원
장 소	9.26(수)~18(금) : 본관 진입로(중앙도서관, 온실 사이) 9.21(월)~22(화) : 평화의전당 로비

• 세계평화의 날 기념 ‘경희 인문학 포럼’ 초청 특강

일 자	2015.9.22.(화). 10:30~12:00
주 제	자기성찰에 대한 잠정적 생각(Tentative Thoughts on Introspection)
초청자	이반 하벨(전 카렐대학교 이론연구소장)
주 관	문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미래문명원
장 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